

대학 신입생·AI 입문자를 위한 실전 가이드

처음 만나는 Claude AI

가입부터 첫 대화, 그리고 나의 공부 파트너로 만들기까지

"AI는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아무도 처음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대상: 대학 신입생 및 AI 첫 사용자

박주원 공학박사

2026

00 들어가며 - 이 자료를 펼친 당신에게

혹시 이런 마음이 든 적 있나요? "AI가 좋다는 건 알겠는데, 막상 커보면 뭘 어떻게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다." "괜히 어려워 보이고, 나랑은 상관없는 것 같다."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왔습니다.

사실 AI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처음 시작하는 5분을 아무도 친절하게 안내해주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자료는 딱 그 5분을 채우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컴퓨터를 잘 몰라도, 전공이 무엇이든, 순서대로 따라오기만 하면 됩니다.

약속 이 가이드를 끝까지 따라오면, 당신은 오늘 안에 AI에게 첫 질문을 던지고 "오, 이거 되네?"라고 말하게 될 rjq니다.

이 가이드가 특별한 이유

- 전문 용어를 최대한 뺐습니다. 꼭 필요한 단어만, 쉬운 말로 풀었습니다.
- "이렇게 하세요"가 아니라 "이 버튼을 누르세요" 수준으로 구체적입니다.
- AI를 '숙제 대신 해주는 기계'가 아니라 '내 실력을 키워주는 파트너'로 쓰는 법을 알려줍니다.

왜 하필 Claude(클로드)인가

AI 서비스는 여럿 있습니다. 그중 이 가이드가 Claude를 고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글쓰기와 긴 문서 이해에 강해서 대학 공부와 잘 맞습니다.

둘째,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비교적 정직하게 말하도록 설계되어 초보자가 잘못된 정보에 덜 속습니다.

셋째, 무료로도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01 왜 지금 AI 를 배워야 할까

"AI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맞습니다. 하지만 질문을 바꿔봅시다.

계산기가 처음 나왔을 때, 그것을 쓴 사람과 거부한 사람 중 누가 수학을 더 빨리 풀었을까요?

AI 는 '대신하는' 도구가 아니라 '거드는' 도구

많은 사람이 AI를 오해합니다. "AI가 다 해주면 내 실력이 안 늘잖아." 이 걱정은 AI를 잘못 쓸 때만 맞는 말입니다. AI에게 답을 통째로 받으면 실력이 줄지만, AI에게 내 생각을 검증 받으면 실력이 늡니다. 같은 도구라도 쓰는 방법이 정반대의 결과를 냅니다.

핵심 AI에게 "답을 주세요"라고 하는 학생과 "내 생각이 맞는지 봐주세요"라고 하는 학생은, 1년 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신입생에게 AI 가 특히 유용한 3 가지 순간

이런 순간에	AI는 이렇게 돕습니다
교수님 설명이 이해 안 될 때	어려운 개념을 내 눈높이의 예시로 다시 풀어 설명해 줍니다. 몇 번이고 물어도 됩니다.
과제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할 때	글의 뼈대(목차)를 함께 짜주고, 방향을 잡아 줍니다. 초안은 내가 씁니다.
영어 논문·자료가 부담될 때	핵심을 요약하고 모르는 표현을 번역해, 이해의 시간을 크게 줄여 줍니다.

생각해보기 위 세 가지 중 어느 것도 "AI가 대신 공부해준다"가 아닙니다.

모두 "내가 더 잘 공부하도록 돕는다"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AI 사용의 출발점입니다.

02 시작하기 - 가입은 3 분이면 끝납니다

복잡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메일 하나면 됩니다. 카드 등록도, 복잡한 설정도 필요 없습니다. 아래 순서를 그대로 따라오세요.

STEP

1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인터넷 주소창에 `claude.ai` 를 입력합니다.
- 구글에서 'Claude AI'로 검색해 들어가도 됩니다.
- PC, 노트북, 스마트폰 어디서든 됩니다.

STEP

2

회원가입 버튼을 누릅니다

- 화면의 'Sign up(가입)' 버튼을 클릭합니다.
- 가장 쉬운 방법은 구글 계정으로 가입(Continue with Google)입니다.
- 구글 계정을 고르고 '허용'만 누르면 절반은 끝납니다.

STEP

3

이메일 인증 후 바로 시작

- 이메일로 가입했다면 받은 인증번호를 입력합니다.
- 이름과 생년월일 등 간단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끝입니다. 바로 채팅 화면이 열립니다.

무료로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결제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료 플랜(Free)만으로도 하루 수십 번 대화할 수 있고, 과제 초안·번역·요약 같은 일상 공부에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유료(Pro)는 나중에 '더 많이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 고민해도 늦지 않습니다.

학생이라면 꼭 확인 다니는 대학이 Anthropic과 파트너십을 맺었다면(Claude for Education), 재학 중 프리미엄 기능을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학교 IT 지원팀이나 학교 홈페이지에서 'Claude'를 검색해 확인해 보세요. 없다면 무료 플랜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03 첫 대화 - 그냥 말을 걸어보세요

가입을 마치면 아래쪽에 네모난 입력창이 하나 보입니다. 여기가 전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친구에게 카톡하듯 말을 걸면 됩니다.

지금 당장 복사해서 써볼 첫 문장 3 개

무엇을 물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아래 문장을 그대로 입력창에 넣고 엔터를 눌러보세요.

상황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가볍게 시작	안녕! 나는 대학교 1학년이야. 너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3가지만 알려줘.
공부에 바로	'기회비용'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고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예시로 설명해줘.
과제 준비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에 대한 리포트를 쓰려고 해. 목차를 어떻게 짜면 좋을지 제안해줘.

놀라지 마세요 답이 마음에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좀 더 쉽게", "예시를 더 들어서", "3문장으로 짧게"라고 다시 말하면 AI가 곧바로 고쳐줍니다. 대화는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주고받으며 다듬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딱 하나의 비결: 구체적으로

AI에게 좋은 답을 받는 비결은 딱 하나,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아래 두 질문의 차이를 보세요.

아쉬운 질문	좋은 질문
글 써줘	환경 동아리 모집 안내문을 200자로, 친근한 말투로 써줘
이거 설명해줘	광합성 과정을 3단계로 나눠서, 중학생이 알 수 있게 설명해줘
번역해줘	이 영어 문단을 자연스러운 한국어로 번역하고, 어려운 단어는 따로 정리해줘

기억할 공식
누가 · 무엇을 · 어떻게(길이·말투·형식) - 이 세 가지만 넣으면 질문이 확 좋아집니다.

04 가장 중요한 규칙 - AI 를 100% 믿지 마세요

이 장은 이 가이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AI는 놀랍도록 똑똑하지만, 가끔 아주 자신 있게 틀린 말을 합니다. 이것을 '환각(Hallucination)'이라고 부릅니다.

환각이 뭔가요?

AI는 '정답을 아는 기계'가 아니라 '가장 그럴듯한 말을 만들어내는 기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존재하지 않는 책 제목, 가짜 통계, 틀린 날짜를 진짜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틀렸을 때도 말투가 너무 당당해서 초보자는 그대로 믿기 쉽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기억 AI가 알려준 '사실·숫자·인용·출처'는 그대로 믿지 말고, 반드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특히 과제나 발표에 넣을 내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환각에 안 속는 3 가지 습관

습관	구체적으로	왜
출처를 물어라	"그 정보의 출처가 어디야?"라고 되물어보기	출처를 못 대면 신뢰도가 낮다는 신호
교차 확인하라	중요한 사실은 검색·교재로 한 번 더 확인	AI의 답은 '초안'이지 '정답'이 아님
의심스러우면 되물어라	"정말 확실해? 틀릴 수도 있어"라고 확인	AI가 스스로 오류를 바로잡기도 함

그래서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AI가 틀린 정보를 줬더라도, 그것을 골라 쓴 책임은 사용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AI는 사과하지 않고, 성적표에 대신 이름을 올려주지도 않습니다. 이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AI를 안전하게 쓸 자격이 있습니다.

한 문장 원칙 AI는 조수이고, 최종 결정과 책임은 언제나 '나'에게 있습니다. 이 순서를 지키면 AI는 든든한 도구가, 잊으면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05 공부 파트너로 쓰기 - 실전 활용 10 가지

이제 진짜 활용법입니다. 아래는 대학 생활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입력하세요' 예시를 그대로 따라 해보세요.

활용 장면	이렇게 입력해 보세요
개념 이해	이 개념을 초등학생도 알게 비유로 설명해줘: (개념 붙여넣기)
요약	이 3페이지 글의 핵심을 5줄로 요약해줘: (내용 붙여넣기)
과제 구조 잡기	이 주제로 리포트 목차를 짜줘. 서론-본론-결론으로: (주제)
글 다듬기	내가 쓴 이 문단을 더 매끄럽게 고쳐줘. 뜻은 그대로: (내 글)
번역+학습	이 영어를 번역하고, 몰라도 될 단어와 꼭 외울 단어를 나눠줘
시험 대비	이 범위로 예상 문제 5개와 답을 만들어줘: (범위)
발표 준비	이 내용으로 5분 발표 대본을 만들어줘. 청중은 같은 과 학생
아이디어	동아리 이름 후보 10개를 성격별로 제안해줘
일정 관리	중간고사 2주 전이야. 하루 단위 공부 계획을 짜줘
피드백 받기	이 자기소개서를 읽고 어색한 부분과 개선점을 알려줘

절대 하지 말 것

AI가 써준 글을 그대로 복사해 제출하는 것은 대필이며, 학습 실패이자 학칙 위반일 수 있습니다. AI는 '초안 도우미'이지 '대리 작성자'가 아닙니다. 반드시 내 손으로 이해하고 다시 쓰세요.

06 초보자가 자주 겪는 벽과 넘는 법

많은 사람이 여기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이유를 알면 별것 아닙니다. 자주 나오는 고민을 미리 풀어드립니다.

"뭘 물어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장 흔한 벽입니다.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AI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OO학과 1학년인데, 너를 공부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예시 5개만 알려줘." AI가 스스로 활용법을 제안해줍니다.

"답이 너무 길고 어려워요"

"3줄로 요약해줘", "중학생 수준으로 쉽게"라고 덧붙이면 됩니다. 길이와 난이도는 내가 정하는 것입니다.

"내 정보가 새어나갈까 걱정돼요"

건강한 걱정입니다. 주민번호, 카드번호, 비밀번호, 남의 개인정보는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이 원칙만 지키면 일상적 공부 용도는 안전합니다.

한 단계 성장하는 작은 팁

팁	내용
새 주제는 새 채팅	대화가 길어지면 새 대화창을 여세요. AI가 덜 헷갈리고 더 빠릅니다.
역할을 정해주기	"너는 친절한 경제학 튜터야"라고 시작하면 답의 톤이 딱 맞아집니다.
단계로 나누기	큰 과제는 "먼저 목차만", 다음 "1장만" 식으로 쪼개서 요청하세요.
Memory 활용	2026년부터 무료로 제공되는 기억 기능이 켜지면, 매번 나를 소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07 7 일 챌린지 - 습관으로 만들기

가장 좋은 학습은 '조금씩 매일'입니다. 하루 5분씩, 딱 일주일만 따라 해보세요.

7일 뒤에는 AI가 어색하지 않은 도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차	오늘의 미션 (하루 5분)
1일	가입하고 "너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알려줘"라고 물어보기
2일	오늘 배운 어려운 개념 하나를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기
3일	영어 자료 한 문단을 번역하고 단어 정리 받기
4일	과제 하나의 목차를 함께 짜보기 (초안은 내가 쓰기)
5일	내가 쓴 글을 다듬어 달라고 하고, 뭐가 바뀌었는지 비교하기
6일	AI 답에서 사실 하나를 골라 검색으로 교차 확인해보기 (환각 훈련)
7일	이번 주 배운 걸로 나만의 활용법 3가지를 스스로 정리하기

6일차가 핵심

6일차 '교차 확인'은 이 챌린지의 심장입니다. AI를 잘 쓰는 사람과 위험하게 쓰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 '확인하는 습관'의 유무에서 갈립니다.

작은 응원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어색해도, 틀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오늘 한 번 더 말을 걸어 본 것' 그 자체입니다. 서툰 첫걸음이 결국 익숙함이 됩니다.

08 마치며 - 도구를 넘어, 사고의 파트너로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은 이미 출발선을 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세 가지를 남깁니다.

기억할 세 가지

- AI 는 나를 '대신'하는 게 아니라 '거드는' 도구다. 답을 받지 말고 생각을 검증받아라.
- AI 는 당당하게 틀릴 수 있다. 사실·숫자·출처는 반드시 내가 확인한다.
- 최종 결정과 책임은 언제나 나에게 있다. 그래서 AI 는 위협이 아니라 나의 힘이 된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당신에게

AI를 잘 쓰는 능력은, 앞으로 어떤 전공을 하든 어떤 직업을 갖든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하지만 그 무기의 진짜 힘은 AI의 성능이 아니라, 좋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당신의 생각'에서 나옵니다.

AI는 당신의 생각을 키우는 도구이지, 대체하는 도구가 아닙니다.

마지막 한마디

가장 좋은 AI 사용자는 AI를 가장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AI로 아낀 시간과 에너지를 자신의 진짜 성장에 쓰는 사람입니다. 오늘, 딱 한 문장만 AI에게 말을 걸어보세요. 그 한 문장이 시작입니다.

본 자료는 대학 신입생 및 AI 입문자의 첫 진입을 돕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요금제·기능 등 세부 사항은 2026년 기준이며,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claude.ai* 공식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박주원 공학박사 · 2026